

성과공유컨퍼런스
'26. 9. 7.(월) 10:30

개 회 사

2026. 9. 7.

재 정 경 제 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입니다.

오늘 참석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므로
한국말로 연설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멀리서 와주신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AfDB 부총재님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각국의 대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KSP 협력을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KSP 수석고문님들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바로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정책입니다.

오늘날 AI와 디지털 전환은
우리 모두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그러나 AI가 저절로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국가 간 격차를 좁히는 성장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낼지는
결국 각국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결할지
논의하는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흥국에게는
AI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생산성과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성장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AI, AI for All 이라는 비전 아래
KSP를 통해 협력국과 함께
AI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협력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몇몇 기업의 첨단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과 인터넷망,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과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제조·의료 등 각 산업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AI와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경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각국의 발전단계와 산업구조에 맞게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기술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AI를 개발하는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농업·제조·의료와 공공부문 등 각자의 현장에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폭넓게 양성해야 합니다.
AI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하며,
사람의 역량을 높이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AI가 주는 기회뿐만 아니라
안전과 신뢰, 데이터와 기술격차와 같은 과제 역시
어느 한 국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은
AI를 통한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네 가지 과제를
KSP라는 국제협력 플랫폼을 통해
협력국과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의 여건과 역량을 함께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하며,
이를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연결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기술의 격차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정책의 격차는
협력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KSP를 협력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또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UN 산하 국제기구 및 MDB들과 함께
전 지구적 난제를
AI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AI가 가져올 번영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